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강진글사랑	3
현구 생가을 다녀와서.....	3

현구 생가를 다녀와서.....

작성일 2022.11.28 22:25 등록자 마범구 조회수 178

오늘 비도 내리고 해서 그동안 못 가 본 곳을 찾다가 현구 생가를 들렀네요.

얼핏 보기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보였습니다.

관광객도 없고 해서 생가 전체를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돌아 보았답니다.

정계, 방문도 열어 보고....

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마음이 전반적인 느낌입니다.

특히 초가 지붕은 정감이 전혀 없는 모양이었고, 꼭 일본식 집인가?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

나오는 길에 돌담을 보니 처음에는 짚푸라기 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.

무슨 종이 같은 짚 모조품으로 담지붕을 엮어 올려 놔더군요.

전에 영랑 생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.....

그래서 영랑 생가에 다시 들려 봤더니 거긴 정상이었습니다.

인근에 위치한 두 생가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.

나름 이유가 있겠지요.

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왕 할거면 조금 늦더라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?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[목록](#)[실명인증글쓰기](#)

GANGJIN

Web Contents

